

방송 뉴스 자살 보도 시 미화법 사용과 배경 설명이 대학생의 자살 관련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창현*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수료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휘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택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영지*****

University of Georgia 박사과정

본 연구는 미디어가 자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살자의 행동을 미화하거나 자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대중의 자살 관련 인식(자살, 자살자, 자살 보도)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자살 보도 시 “미화법(사용 vs. 미사용: 동반 자살 vs. 살해 후 자살)”과 “배경 설명(유/무)”에 따라 4가지 조건을 다르게 조작하여 영상물을 제작하고, 서울 시내 대학생 120명을 각 조건에 무작위로 할당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그룹은 영상 시청

* digitalmose@gmail.com

** bus89@sogang.ac.kr, 교신저자

*** hwikwanjung@korea.kr

**** taeksoo@nhis.or.kr

***** youngji.seo@uga.edu

전과 후에 설문에 응답하였고, 일부 피험자들은 실험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동반 자살' 표현을 포함한 경우 자살 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배경 설명'을 추가한 경우 자살 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수준은 낮았다. 다음으로 '살해 후 자살' 표현을 사용하고 '배경 설명'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 자살 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 인식 수준은 가장 낮으나, 자살자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동반 자살' 표현을 사용하고, '배경 설명'을 추가 한 경우 영상 시청 전보다 자살에 대한 부정성 인식이 낮아졌다. 본 연구결과,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핵심항목이자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살에 대한 미화법 사용'과 '자살 사건에 대한 배경 설명 추가' 여부가 자살 관련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향후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자살 관련 미디어 콘텐츠 권고방안 마련을 위한 소중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자살 행동 인식, 자살 미화법, 자살 배경 설명, 베르테르 효과, 자살예방, 미디어 효과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중앙자살예방센터를 구심점으로 정부 관계 부처들이 자살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관련 정책을 시행해 온 결과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0년에 33.5명에서 2016년 28.7명으로 줄었다(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2018). 하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최근 자살률을 기준으로 상위 국가들을 살펴보면 헝가리는 19.4명, 라트비아와 슬로베니아는 18.1명, 일본은 17.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 주요 국가의 최근 자살률은 미국 13.5명, 영국 7.5명, 핀란드 14.1명이다(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2018)

자살률 감소 문제는 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각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강월숙·문재우, 2013; 고유미 외, 2016). 특히, 학계에서는 베르테르 효과(Philip, 1974)를 통해 미디어가 전달한 자살 관련 정보가 자살률 증가에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디어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김호경, 2015; 유현재, 2015; 정승민, 2005; 정승민·박영주 2009).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자살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미디어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보도 시 미디어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2004년 7월 30일 처음으로 공포하였으며, 2013년 9월 10일에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개정 발표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내 언론에서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유현재, 송지은, 2012). 특히, 윤진(2013)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보도 권고기준 발표 이후 미디어의 미준수 비율은 신문의 경우 2006년 35%에서 2012년 49%로, 방송의 경우 2006년 48%에서 2012년 67%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또한 2013년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이 개정 발표된 이후 미디어의 준수율을 파악한 배소원의 연구(2018)에 따르면 미디어 전문가들이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은 향상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자살 보도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차원의 미디어 전문가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더욱 잘 준수되길 희망하며, 권고 사항 중 두 가지 요인을 우선으로 선택하여 세부적으로 검증하고 그 영향력을 제시하였다. 우선 미화법 사

용(제 5조)과 관련하여 자살 보도 시 ‘살해 후 자살’이 아닌 ‘동반자 살’이라는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살 관련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자살 배경 설명 최소화(제 3조)와 관련해서 자살 배경 설명 유무에 따라 자살 관련 인식의 차이가 발생함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방송사의 협조를 얻어 실제 방송과 동일한 방송 뉴스 영상(처치물)을 제작하고 대학생들을 집단별로 나누어 시청하도록 한 후, 그 영향력을 비교한 실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살 보도 시 미디어 전문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자살과 관련된 연구들의 외연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2. 이론적 고찰

1) 자살 보도의 영향력

자살 행동(suicide behavior)은 자살 수행(completed suicide)뿐만 아니라, 자살 시도(suicide attempt)와 자살 사고(suicide ideation) 등을 포괄한 개념이다(김용구 · 이분희 · 이홍식, 2014). 이러한 자살 행동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자살 원인 이론모델을 제시한 조이너(Joiner, 2005)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는 느낌’과 ‘자신이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다는 생각’을 자살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제시하였고, 자살 원인이 축적된 사람들을 자살경향자로 정의한다. 특히 이러한 자살경향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유명인이나 타인의 자살을 접하고 자신을 자살자들과 강하게 동일시하는 경우에 자신의 끔찍한 고통을 실제보다 더 크게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아! 나의 고통은 자살로밖에 해결할 수 없구나’, ‘아! 저런 방법으로 이 끔찍한 상황을 끝낼 수 있겠

구나'라고 생각한 끝에 모방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Monestier, 2015).

이러한 모방 자살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발간 이후 자살 증가 현상이다. 이는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 또는 자살전염-suicide contagion)' 이라고 불리는데 소설 출간 후 소설 주인공과 유사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급증했던 사건에서 유래되었다(배소원, 2018). 베르테르 효과에 따르면 자살경향자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과 자살을 성공한 특정 자살자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그 자살자와 심리적 동일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살자와 동일한 자살 방법이나 자살 장소를 선택하여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Phillips, 1974).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자살에 영향을 주는 미디어의 역할을 연구하기 위해 베르테르 효과에 주목하였다. 실제로 미디어에서 자살 사건을 보도한 이후 자살 사건이 있었던 지역에서 모방 자살자가 증가하였던 반면에 자살 사건 보도를 접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자살자 증가 현상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다(Cheng et al, 2007).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자살의 순환적 상호작용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베르테르 효과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의 자살 보도가 원인이 되어 자살이 유도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살 요인의 등장으로 인해 자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자살 보도가 활발해진 것일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자살 증가의 원인을 자살 보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살이 급증하였고, 이후 자살 관련 보도가 증가하게 되어, 자살 보도에 의해서 모방 자살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살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한 것일 수 있다(은기수, 2005, 허태균·장훈, 2014).

이렇듯이 자살이 미디어의 영향으로 전염된다는 것은 아직도 사회과학 연구의 중요한 논쟁의 대상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자살 관련 미디어가 후속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허태균·장훈, 2014). 특히 퍼키스와 블러드(Pirkis & Blood, 2001a, 2001b, 2001c)의 연구에서 자살에 대한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이 힐(Hill, 1971; 허태균·장훈, 2014 재인용)이 제안한 인과관계 규명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자살 사건 증가의 원인을 미디어를 통한 자살 관련 정보의 노출로만 특정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자살을 촉발 할 수 있는 자살 보도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도 없는 것이다.

2) 자살 보도 시 미화법 사용

자살 보도를 통한 자살의 촉발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차별적 동일시 이론(differential identification theory), 점화 효과 이론(priming effect theory), 행위 전염 이론(behavior contagion theory)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김병철, 2010), 대표적으로는 사회 학습이론이 있다(김병철, 2010, 허태균·장훈, 2014; Pirkis & Blood, 2001c). 사회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Bandura, 1971: 1977a: 1977b)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 변화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데, 타인의 성공적인 행동에 대한 관찰은 유사한 행동을 증가시키고, 처벌된 행동의 관찰은 그 행동 경향성을 감소시킨다(Bandura, 1977a). 이때 타인이 사회적으로 금지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에 대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타인이 성공적인 행동을 통해 보상을 받은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행동경향성이 증가한다(Bandura, 1977b).

이러한 사회 학습이론의 관점을 자살 경향자들의 입장에서 적용해 본다면, 자살자에게 어떠한 사회적 처벌도 주어지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자살 수행을 통해 일종의 보상이 주어진 것으로 인식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자살 예방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자살 보도를 통해 자살자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처벌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살자를 사회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살자는 자살 수행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며 이중에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요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는 자살 행동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다. 자살은 사실 단일한 문제로 결정된 다기 보다는 우울증, 정신분열, 고립 등의 정신적인 요인들과 육체적 고통, 물리적 고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김연중, 2005; 김태형, 2017; 임세원, 2016).

자살자 처벌에 대한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자살을 통해 어떠한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인식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김병철, 2010). 이를 위해서는 자살자에 대한 애도와는 별개로 자살 자체는 부정적 행동이라는 인식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자살에 대한 미화라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베르테르 효과를 밝혀낸 필립스(Philips, 1974)는 소설 발간 이후 모방 자살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괴테가 자살을 미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소설이 자살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아픔을 마무리하는 고귀한 행동이며, 자살 뒤에 남은 사람은 이러한 자살로 인해 행복해진다고 묘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로 인해 유럽 전역에 자살이 급증한 것이다. 자살 보도 과정에서 자살자를 영웅시하거나 결연한 모습으로 묘사, 혹은 로맨틱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살을 미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Lamb & Dunne-Maxim, 1987).

실제 자살 보도에서 자살을 미화하는 대표적인 경우 중의 하나는

자살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이다. 이 표현을 통해 ‘오죽하면 자살했겠느냐’는 식으로 자살에 대한 동정론이 형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김연중, 2005),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는 자살 보도 시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이 자살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유현재, 2015). 이와 관련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 2.0’(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2013)은 자살과 자살자를 미화한 동반자살 보도 기사의 구체적인 예시(5조 2항)를 제시하고 있다: “치매 아내 4년 돌보던 80대 끝내, ‘이 길이 가장 행복’ 마지막 동행, 승용차로 저수지 빠져 동반자살, ‘운전 가능할 때 함께 가기’ 유서.” 이 기사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돌보는 것에 지친 남편이 더 이상 아내를 돌볼 수 없게 되자 아내와 함께 저수지에 투신하였다. 그리고 남겨진 유서의 내용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이 길이 아버지, 어머니가 가야 할 가장 행복한 길이다.” 이 보도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던 아내가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살해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의한 아내 ‘살해 후 자살’을 ‘동반자살’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선택이 최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자살 보도는 분명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은 특히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함께 자살한 경우에는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외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 후 자살하는 것을 신생아살해(neonaticide), 영아살해(infanticide), 아동살해(child homicide), 자녀살해(filicide)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부모의 명백한 살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 언론은 분명한 부모에 의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동반자살’이라 표현하고 있다(정승민, 2005). 이 경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행동이 남겨질 자녀들을 배려한 행동으로 인식될 가능성 높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이 자살 후 남겨질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신의 행동이 최

선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분명한 살해 행위이다. 자녀에 대한 이러한 살해 행위는 사회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금지된 행동으로써 절대 합리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가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보상이 따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적 대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3) 자살 보도 시 배경 설명

자살 보도가 자살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살의 원인을 단정적으로 기술하거나 자살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자살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된다(Joiner, 2005). 사회학습이론은 타인의 성공적인 행동에 대한 관찰이 유사 행동의 증가를 가져 온다고 주장한다. 이런 차원에서 자살자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정당성은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자체로 자살자의 동기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종의 보상이 주어진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배준성과 허태균(2010)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경향자들은 자살 보도를 통해 자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 할 뿐만 아니라, 자살자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식 할 수 있다.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인식의 축적은 사회학습이론에서 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사 행동의 증가를 통해 자살 수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이너(2005)는 자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축적만이 아니라, 자살 사건에 노출되는 것 자체만으로 자살경향자는 자살에 대해 무감각해질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해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높은 폭력성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폭력에 무감각해질 뿐만 아니라, 폭력 행

동을 억제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한수미, 2012; 허태균·장훈, 2014), 자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자살을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둔감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에 따른 결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로 자살 행동을 모방 할 수 있다(허태균·장훈, 2014). 타인의 자살에 익숙해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심각한 자살 행동의 필수 전제이다(Joiner, 2010).

자살경향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자신이 처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임세원, 2016). 이러한 자살 경향자들이 자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살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살에 익숙해져서 자살에 대한 억제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할 경우 안타깝게도 모방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자살 보도는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자살 수행을 촉발 할 수 있다. 이는 자살 보도 시 미디어가 자살 관련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살 배경에 대한 설명을 과연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도록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 보도 시 미화법 사용과 더불어 자살 배경 설명 여부에 따라서 자살 관련 인식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살 보도 시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를 쓰거나 살해 후 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와 자살이 선택적 대안이라는 뉘앙스의 배경 설명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인식 및 자살 보도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자살 보도 시 ‘미화법 사용’에 따라 자살 관련 인식(자살, 자살자, 자살 보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자살 보도 시 '배경 설명'에 따라 자살 관련 인식(자살, 자살자, 자살 보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자살 보도 시 '미화법 사용'과 '배경 설명'에 따라 자살 관련 인식(자살자, 자살 보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자살 보도 시 '미화법 사용'과 '배경 설명' 여부에 따라 자살 인식의 변화는 어떠한가?

3.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국내의 자살 관련 연구는 청소년이나 노인에 국한되어 있어 자살 예방에 한계를 보인다(유현재, 2015). 통계청(2015)에 따르면 20·30대 초기 성인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으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 인구에 해당하는 초기 성인의 자살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성인 가운데 20대의 대학생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교의 남녀 대학생 120명을 연구 대상으로 2(미화법) × 2(배경설명)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자살 보도의 미화법 사용과 배경 설명 여부에 따라 미화법(동반자살)/배경설명(유), 미화법(동반자살)/배경설명(무), 미화법(살해 후 자살)/배경설명(유), 미화법(살해 후 자살)/배경설명(무)의 모두 네 개의 실험집단을 구성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120명의 대학생은 무작위추출법에 의해 30명씩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4개의 그룹에게 사전 질문에 답하도록 한 후, 각기 다른 뉴스 보도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시청이 끝난 후 각 그룹에게 영상물에 대한 질문지를 배포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실험 종료 후, 실험과 관련한 의견을 자

유롭게 적을 수 있는 주관식 문항을 추가하였다: 1. 잠시 전 시청하신 자살관련 TV보도 중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장면이나, 문구, 그 외의 사항들이 있으신지요? 어떠한 내용이든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자살관련 TV보도를 시청하신 다음, 본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본인은 보도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긍정, 부정, 그 외)? 또한, 주변인이나 타인(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상기 보도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3. 시청하신 자살관련 TV보도의 내용에서, 공익적/윤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자살 관련 보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포함 혹은 삭제되어야 할 내용 등)

2) 메시지 조작

참여자들에게 노출한 자살 뉴스 보도는 ‘자살보도 권고기준2.0’(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2013)의 관련 조항을 토대로 직접 제작되었다. “자살과 자살자를 미화하거나 영웅시해서는 안 됩니다(5조 2항). 자살 동기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표현은 자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3조 5항).” 실제 보도의 일부를 활용하지 않고 실험 처치물을 직접 제작한 이유는 피험자 중에 일부가 혹시라도 특정 사건을 이미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현업에서 현재 활약 중인 방송작가와 앵커의 도움을 받아 기사작성에서 보도물 제작까지 최대한 현실에 버금갈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물을 참여자들에게 노출했다. 각 그룹에 사용한 실험 처치물은 다음과 같다.

〈표 1〉 미화법 사용과 배경 사용에 따른 실험 집단 구분

		배경 설명	
		유	무
미화법 사용	동반자살	그룹 1	그룹 2
	살해 후 자살	그룹 3	그룹 4

그룹 1. (미화법: 동반 자살) 오늘 새벽 2시 경 서울에 사는 40살 김모 씨가 5살, 3살 난 두 딸과 극약을 마셨습니다. 이들은 약을 마신 직후 친척들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병원 도착 즉시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장인 김모 씨가 사업 실패로 인해 아내가 집을 나가자 딸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배경설명: 유**) 이들을 발견한 친척들에 의하면 숨진 김 모씨는 1년 전 사업 실패로 살던 아파트 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최근에는 주변의 친인척들에게 생활비를 꾸는 등 금전문제로 인해 극심한 고민에 시달렸으며 아내와의 불화 끝에 얼마 전엔 아내가 가출해서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룹 2. (미화법: 동반 자살) 오늘 새벽 2시 경 서울에 사는 40살 김모 씨가 5살, 3살 난 두 딸과 극약을 마셨습니다. 이들은 약을 마신 직후 친척들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병원 도착 즉시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장인 김모 씨가 딸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배경 설명: 무**)

그룹 3. (미화법: 살해 후 자살) 오늘 새벽 2시 경 서울에 사는 40살 김모 씨가 5살, 3살 난 두 딸에 극약을 먹여 살해 한 후, 자신도 같은 약을 마셔 숨졌습니다. 이들은 약을 마신 직후 친척들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병원 도착 즉시 숨졌습니다. / (배경 설명: 유) 이들을 발견한 친척들에 의하면 숨진 김 모씨는 1년 전 사업 실패로 살던 아파트 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최근에는 주변의 친인척들에게 생활비를 꾸는 등 금전문제로 인해 극심한 고민에 시달렸으며 아내와의 불화 끝에 얼마 전엔 아내가 가출해서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 4. (미화법: 살해 후 자살) 오늘 새벽 2시 경 서울에 사는 40살 김모 씨가 5살, 3살 난 두 딸에 극약을 먹여 살해 한 후, 자신도 같은 약을 마셔 숨졌습니다. 이들은 약을 마신 직후 친척들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병원 도착 즉시 숨졌습니다 / (배경 설명: 무)

3) 주요 변인의 측정

(1) 우울

피험자들의 우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이 번안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항목들을 차용하여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진다’,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었다’, ‘어느 누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비교적 잘 지냈다’, ‘상당히 우울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앞 일이 암담하게 느껴졌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보통사람 만큼의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두려움을 느꼈다’,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었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사

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마음이 슬펐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도무지 무엇을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의 20문항을 리커트식 5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결측값을 방지하기 위해 긍정적인 3개의 문항을 역채점 하였으며, 우울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873이다.

(2) 자살자 인식

자살자 행동에 대한 인식은 송한수(2006)의 연구에서 활용된 항목들을 차용하였으며, '보도에 등장한 자살자의 행동(자살관련 행동)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보도에 등장한 자살자의 행동(자살관련 행동)에는 나름대로의 목적(이유)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보도에 등장한 자살자의 행동(자살관련 행동)은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보도에 등장한 자살자의 행동(자살관련 행동)은 충동적인 행동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보도에 등장한 자살자의 행동(자살관련 행동)은 절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보도에 등장한 자살자의 행동(자살관련 행동)은 건강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보도에 등장한 자살자의 행동(자살관련 행동)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앞의 보도에 등장한 자살자의 행동(자살관련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앞의 보도에 등장한 자살자의 행동(자살관련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앞의 보도에 등장한 자살자의 행동(자살관련 행동)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10문항을 리커트 7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772이다.

(3) 자살 보도 인식

피험자들이 자살 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총 7문항을 통해 알아보았다. 박신영(2011)의 연구에서 활용한 항

목들을 본 연구의 방향에 맞게 변형하였으며 ‘앞서 시청한 뉴스와 같은 자살보도는 사회에 자살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시청한 뉴스와 같은 자살보도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앞서 시청한 뉴스와 같은 자살보도는 우리 사회의 자살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앞서 시청한 뉴스와 같은 자살보도는 시청률을 위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시청한 뉴스와 같은 자살보도는 시청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내용과 형식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시청한 뉴스와 같은 자살보도의 증가는 사회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청자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자살보도를 대할 수 있으므로, 앞서 시청한 뉴스와 같은 보도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7문항을 리커트식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864이다.

(4) 자살 인식

자살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서울 시민의 자살 인식 및 스트레스 위험요인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유현재와 조은선(2013)의 연구 활용된 문항들을 차용하였으며, ‘자살은 가까운 가족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자살은 옳바르지 않다’, ‘자살은 심각한 윤리적 죄악이다’, ‘자살을 하면 어떠한 문제라도 해소될 수 있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살도 하나의 선택이다’, ‘자살은 개인의 권리이다’, ‘자살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자살은 상담이나 치료로 예방이 가능하다’, ‘자살에 대한 뉴스나 기사가 나오면 관심 있게 보는 편이다’ 등의 10문항을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719이다.

4. 연구결과

1) 집단의 동질성 검증

미디어의 모방 자살 효과 연구를 분석한 스택(Stack, 2003)은 개인적 심리 요소인 우울이 미디어의 자살 묘사를 통한 모방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 설명한다.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우울이며 자살 충동의 가장 강한 예측 인자들이 우울증적 증상들으로써, 자살 보도의 노출과 함께 우울에 의해서 자살 보도의 부정적 영향력이 더 커지 수 있다(이민아·김석호·박재현·심은정, 2010, 이수정·문성미·이지미·연구진, 2015, Stack, 2005) 이에 본 연구는 자살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을 검증을 진행하기 전에 우울감에 대한 실험 집단 간 표본이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추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동질성 검정을 사용하였다(유성모, 2015). 4집단의 우울 수준이 동질적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울 수준을 평균 분할하여 고/저 집단으로 나누고 SPSS 25.0 프로그램을 통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은 .784로 일반적인 유의수준 .05보다 컸다. 따라서 집단별 우울 수준 분포가 동질적임이 검증되었다.

2) 연구문제 검증

(1) 연구문제 1: 자살 보도 시 ‘미화법 사용’에 따라 자살 관련 인식은 어떠한가?

첫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자살 보도 영상을 시청한 대학생 그룹과 ‘살해 후 자살’이라는 표

<표 2> 미화법 사용(동반자살 vs. 살해 후 자살)에 따른 자살 관련 인식

측정변인	평균값	t	자유도	p
자살 인식	동반자살(60명): 3.75	.192	118	.848
	살해 후 자살(60명): 3.73			
자살자 인식	동반자살(60명): 4.07	-.354	118	.724
	살해 후 자살(60명): 4.09			
자살 보도 인식	동반자살(60명): 3.73	2.825	118	.006**
	살해 후 자살(60명): 3.30			

* p<.05, ** p<.01, *** p<.001

현이 사용된 자살 보도를 시청한 대학생 그룹이 자살 관련 인식에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살관련 보도 시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포함한 그룹과 ‘살해 후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그룹 사이에는 자살과 자살자 인식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살 보도 내용 인식과 관련하여 미화법(동반자살)이 사용된 보도를 시청한 그룹은 “자살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에 대해 대단히 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앞서 시청한 뉴스는 사람들에게 자살과 관련된 잘못된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방금 시청한 보도는 시청률을 위해 자살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개별 문항에서 여타 그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의 정도를 보였다. 이 같은 의견은 주관식 대답에서도 관찰되었는데,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청자들을 감정적으로 편향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피력하였다.

(2) 연구문제 2: 자살 보도 시 ‘배경 설명’에 따라 자살 관련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는 자살자의 행동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자살을 선택대안의 하나로 인정’하는 뉘앙스를 포함한 보도를 시청한 그룹과 시청하지 않은 그룹이 자살 관련 인식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자살관련 보도 시 자살을 선택대안의 하나로 인정한 배경 설명을 접한 그룹과 접하지 않은 그룹 사이에는 자살 관련 인식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자살을 선택 수단으로 인정하는 배경 설명을 접한 그룹은 상대적으로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은 낮았지만, 자살 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은 더 크게 우려하였다.

<표 3> 자살 배경 유무에 따른 자살 관련 인식

측정변인	평균값	t	자유도	p
자살 인식	유(60명): 3.56	-4.522	118	.000***
	무(60명): 3.92			
자살자 인식	유(60명): 3.99	-2.162	118	.033**
	무(60명): 4.16			
자살 보도 인식	유(60명): 3.86	4.724	118	.000***
	무(60명): 3.18			

*p<.05, **p<.01, ***p<.001

(3) 연구문제 3: 자살 보도 시 ‘미화법 사용’과 ‘배경 설명’에 따라 자살 관련 인식(자살자, 자살 보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은 ‘미화법’을 사용하고, ‘자살을 선택대안의 하나로 인정’하는 배경을 설명을 포함한 자살 보도를 시청한 그룹과 시청하지

〈표 4〉 자살 보도 시 미화법 사용과 배경 설명에 따른 자살자 인식 및 자살 보도 인식

측정변인	평균값	F	자유도	p
자살자 인식	동반자살-배경설명 유(30명): 3.29	10.342	119	.000***
	동반자살-배경설명 무(30명): 3.66			
	살해 후 자살-배경설명 유(30명): 3.34			
	살해 후 자살-배경설명 무(30명): 3.86			
자살 보도 인식	동반자살-배경설명 유(30명): 3.84	16.386	119	.000***
	동반자살-배경설명 무(30명): 3.63			
	살해 후 자살-배경설명 유(30명): 3.88			
	살해 후 자살-배경설명 무(30명): 2.74			

*p<.05, **p<.01, ***p<.001

않은 그룹이 자살 관련 인식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각 그룹은 자살자 행동 인식 및 자살 보도 내용 인식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특히, ‘자살자 인식’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자살 보도가 동반자살이라는 미화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살을 선택적 대안으로 인정하는 배경 설명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피험자들(4 그룹)은 자살자 행동에 대해 부정적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는 자살 보도가 살해 후 자살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자살자 행동에 대해 인지적으로 오인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제거 하는 경우 베르테르 효과와 상반되는 개념인 파파게노 효과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연구문제 4: 자살 보도 시 ‘미화법 사용’과 ‘배경 설명’ 여부에 따라 자살 인식의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는 ‘미화법’을 사용하고, ‘자살을 선택대안의 하나로 인

방송 뉴스 자살 보도 시 미화법 사용과 배경 설명이 대학생의 자살 관련 인식에 미치는 영향

〈표 5〉 미화법 사용과 배경 설명에 따른 자살 인식의 변화

측정변인	평균값	t	자유도	p
그룹 1. 동반자살 / 배경설명 유	사전견해(30명): 3.84 사후견해(30명): 3.59	2.705	29	.011*
그룹 2. 동반자살 / 배경설명 무	사전견해(30명): 3.77 사후견해(30명): 3.91	-1.998	29	.055
그룹 3. 살해 후 자살 / 배경설명 유	사전견해(30명): 3.49 사후견해(30명): 3.53	-.449	28	.656
그룹 4. 살해 후 자살 / 배경설명 무	사전견해(30명): 3.83 사후견해(30명): 3.94	-1.562	28	.129

*p<.05, **p<.01, ***p<.001

정'하는 배경 설명이 포함된 자살 보도의 시청 여부에 따라 자살 행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룹 2, 3, 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자살 행동에 대한 인식이 부정이 높아졌다. 반면에 그룹 1은 자살 보도를 시청 후 자살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낮아졌다. 이를 통해 자살 행동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자살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5. 결론 및 논의

자살 전염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자살경향자들이 자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모방 자살로 이어지는데 영향을 주는 미디어의 역

할에 주목해야 한다(Gould, Jamieson, & Romer, 2003). 허태균과 장훈(2014)은 자살과 관련하여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해 온 연구들의 핵심 관심사를 1) 자살 관련 보도가 사실적이나 허구적이나, 또는 자살자가 유명인이나 일반인이나에 따른 자살률 변동 2) 미디어의 유형에 따른 모방 자살의 증가 여부 3) 미디어 수용자의 연령, 지역 혹은 정신 건강 상태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김병철(2010)은 이 중에서 미디어의 보도 유형이 '광범위한 보도, 현저성이 두드러진 보도, 자살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한 보도, 자살이 매력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된 보도'인지에 따라 자살 모방 효과가 결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경향자들이 자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자살 관련 보도 과정에서 '살해 후 자살'이 '동반자살'로 미화되거나, 자살 사건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 인해 자살이 고통의 상황에서 선택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되는 경우, 자살 관련 인식(자살, 자살자, 자살 보도)이 어떠한지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간 비교 실험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미화법 사용과 관련하여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보도를 접한 대학생들은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살 보도 내용에 대한 인식에 있어 자살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에는 더 큰 우려를 표하였다. 이는 피험자들이 '동반자살'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자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살 보도 시 배경 설명 유무와 관련하여 자살 배경을 포함한 보도를 접한 대학생들은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자살 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우려를 표하였다. 자살 보도가 왜곡될 위험성이 높다고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 수준 자체가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자살 보도 영향력에 대한 일종의 제3자 효과가 일어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강태현·유홍식, 2014). 즉, 자신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자살 보도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통해 자살 보도가 자살 관련 인지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비록 자살 보도의 왜곡 가능성을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살 보도 시 미화법의 사용과 배경 설명 여부에 따른 자살자와 자살 보도 인식을 동시에 비교한 결과 ‘살해 후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배경 설명’을 하지 않은 영상을 접한 그룹은 자살 보도를 통한 왜곡과 위험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자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 또한 가장 높았다. 이는 미화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경 설명을 포함하지 않은 자살 보도를 접하는 경우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높게 유지되며, 이를 통해 파파게노 효과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자살 보도 과정에서 ‘살해 후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배경 설명’을 자제한 보도를 시청한 경우 피험자들은 시청 전보다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높아졌으나, 자살 보도 시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배경 설명’을 포함한 보도를 시청한 경우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수준이 낮아졌다. 자살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저하는 자살 시행을 억제해온 자살경향자들을 자극하여 자살을 시도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자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는 자살 보도 시 사용할 표현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자살 배경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 번째, 설문조사 참여자들에게 노출시킨 자살 뉴스 보도는 가장 대중적인 자살 보도의

한 유형이라고 판단하여 임의로 제작, 시청하게 하였으나 자살보도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의해 한계 사항으로 지적될 수 있다. 자살보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스타일에 따라, 그리고 연출하는 비주얼적 효과에 의한 사람들의 반응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살관련 보도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면서, 과거 기억에만 의존해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자살보도를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였고 자살보도에 관한 대중들의 일반적인 태도 등을 탐구하기에는 무리가 없었다는 판단이었지만, 상이한 유형의 자살관련 보도가 사용되었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살 취약계층의 하나로 알려진 초기 성인 계층을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계층에서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의 대학에서 모든 피험자를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일반화에 있어서 다소의 한계가 있다. 세 번째, 실험 연구의 필수 과정인 처치물에 대한 조작점검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자살 보도 권고기준2.0의 해당 조항을 토대로 기존 사건을 전문가들이 직접 재구성하여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본 실험 전에 일부 피험자를 대상으로 조작 점검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으나, 이는 본 연구의 분명한 한계 사항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살 보도 시 미디어의 역할과 관련하여 분명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자살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자살에 대한 정보 습득이 자살을 촉발할 수 있으며, 자살에 대한 미화가 모방 자살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오지희·김민정, 2014). 이는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 보도 시 자주 사용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인해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실제

로 '살해 후 자살' 대신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자살에 대한 배경 설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한다는 것을 밝혀졌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의의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적용한다면 우선 자녀 살해 사건의 경우 '아이와 동반자살'이라는 표현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자녀 살해 사건은 '자식을 죽인 뒤 자살하거나 동의 없이 자살로 이끄는 경우가 대부분'(정성국 외, 2013)이다. 따라서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살 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살 배경 설명과 관련해서 자살 사건 보도 시 가능한 배경 설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배경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는 정확상 남겨진 가족을 염려하여 함께 자살을 시행한 경우라도 할지라도 '살해 후 자살' 가능성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반자살은 결국에는 살해 후 자살 행위라는 인식을 대중이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자살보도 권고기준2.0은 언론에 대한 권고 사항 수준에 머물러 있다. 향후 자살 관련 연구들은 자살 보도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세부적으로 검증하고, 자살 보도 시 미디어가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자살보도 권고기준2.0은 자살 보도 시 실무적인 차원에서 미디어 전문가들이 참고 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자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월숙, 문재우 (2013). 노인의 자살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8권, 75-96.
- 강태현, 유홍식 (2014). 언론의 자살사건 보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23권, 174-208.
- 고유미, 김언주, 김정훈, 김현희, 심경란, 조은숙 (2016). <자살, 가장 불행한 선택>. 서울: 책과 나무.
- 김병철 (2010).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예측 변인 연구: 자살에 관한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권 2호, 346-362.
- 김연중 (2005).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한국 신문의 자살보도 행태분석,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140-165.
- 김용구, 이분희, 이홍식 (2014). 자살의 생물학적 이해. 한국자살예방 협회 (편), <자살의 이해와 예방> (111-130쪽). 서울: 학지사.
- 김종오 (2010).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연예인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6권 3호, 37-67.
- 김태형 (2017). <자살 공화국: 한국인은 왜 자살하는가?>. 서울: 세창 미디어.
- 김호경 (2015). <자살 예방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
- 박신영 (2011).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제 3자 효과, <한국방송학보>, 25권 6호, 290-331.
- 배소원 (2018). 헬스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자살에 대한 인터넷 기사의 분석과 고찰: 자살 보도 권고 기준 2.0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 배준성, 허태균 (2010). 자살보도에 대한 지각과 인식: 사회학습효과의

- 김중. <한국심리학회지>, 16권 2호, 179-195.
-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자살 보도 권고 기준 2.0
-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2018). 2018 자살예방백서. 서울: 중앙 자살예방센터
- 송한수 (2006). 우울경향성과 자살보도메시지가 자살 태도에 미치는 영향: 단순자살동기보도와 주변인의 애도보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성모 (2015). <논문작성을 위한 SPSS 실전 통계 분석: 매개효과, 조절효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황소걸음 아카데미.
- 오지희, 김민정 (2014). 미디어의 자살보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8권 4호, 167-178.
- 유현재 (2015). 언론학적인 관점에서의 자살: 미디어와 자살, 합리적인 공론을 위한 논의. <자살예방백서> (154-162쪽). 중앙자살예방센터.
- 유현재, 송지은 (2012). 미디어의 성격별, 자살 관련 보도의 스타일에 대한 분석. <보건사회연구>, 32권 2호, 427-467.
- 유현재, 조은선 (2013). 자살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태도와 개인의 특성 간의 관계 연구. <광고학연구>, 24권 3호, 173-196.
- 윤진 (2013). 자살 부추기는 언론보도 실태 및 대안 모색. URL:http://spckorea.or.kr/new/sub03/sub06_view.php?Kind=1340&Code=weblibrary&No=4335&No2=4335&Thread=A&Type=edit&page=4&Next=view&Category=학술대회#view
- 은기수 (2005).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의 상관성: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인구학>, 28권 2호, 97-129.
- 이민아, 김석호, 박재현, 심은정 (2010). 사회적 관계 내 자살경험과

- 가족이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권 2호, 61-84.
- 이수정, 문성미, 이지미, 연규진 (2015). 우울과 자살성의 관계: 자살 허용적 태도와 지인 자살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6권 4호, 23-43.
- 임세원 (2016).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서울: 알키.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권 1호, 59-76.
- 정성국, 이재란, 김진영, 탁기주, 오익준, 명의철 (2013).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녀살해 분석, <한국법과학회지>, 14권 2호, 52-78.
- 정승민 (2005). “동반자살에 관한 연구: 신문기사를 통한 우리나라의 동반자살 실태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권. 1-40.
- 정승민, 박영주 (2009). 자살보도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조건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8권 2호, 153-182.
- 통계청 (2015). 2014년 사망원인통계. 서울: 통계청.
- 한수미 (2012). 대중매체의 자살보도 및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5권 1호, 133-142.
- 허태균, 장 훈 (2014). 자살 예방과 대중매체의 역할. 한국자살예방협회 (편), <자살의 이해와 예방> (325-342쪽). 서울: 학지사.
- Bandura, A. (1971). Psychological modeling: conflicting theories. Englewoods Cliffs, NJ: Prentice-Hall.
- _____ (1977a). Self-efficacy: Towards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_____ (1977b).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Joiner, T.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0). *Myths of Suicid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arcus, E. (2010). *Why Suicide: Question and Answer About Suicide, Suicide Prevestion, and Coping with the Suicide of Someone You Know*, NewYokr, NY: Harper Collins Publishers. 정지현 (역), 2015. 서울: 책비.
- Monestier, Martin (1995). *Suicide: Suicide Historie, Techniques et Bizarreires de la Mort volontaire*. Le Cherche-Midi Editeur, Paris. 1995 한명희 (역). 서울: 새움.
- Cheng, A. T. A., Hawton, K., Chen, T. H. H., Yen, A. M. F., Chang, J-C., Chong, M-Y., Liu, C-Y., Lee, Y., Teng, P-R., & Chen, L-C., (2007). The influence of media reporting of a celebrity suicide on suicidal behavior in patients with a history of depressive disorder.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03, 69-75.
- Gould, M., Jamieson, P. & Romer, D. (2003). Media Contagion and Suicide Among the Young.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9), pp.1269-1284.
- Hill, A. B. (1971). *Principle of Medical Statistics*, London: Lancet.
- Lamb, F., & Dunne-Maxim, K. (1987). *Postvention in schools: Policy and process. Suicide and its aftermath: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the survivor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45-60.
- Pirkis, J., & Blood, W. R. (2001a). Suicide and the media Part I: Reportage in nonfictional media.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22(4), 146-154.
- _____ (2001b). Suicide and the media Part II: Portrayal in fictional media.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22(4), 155-162.

- _____ (2001c). Suicide and the media Part III: Theoretical issue. Reportage in nonfictional media.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22(4), 163-169.
- Philips, D. P. (1974). The influence of suggestion on suicide: Substantive and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e Werther effe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3), 340-354.
- Stack, S. (2003). Media coverage as a risk factor in suicide.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7(4), 238-240.
- Stack, S. (2005). Suicide in the media: A quantitative review of studies based on non-fictional storie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35(2), 121-133.

최초 투고일: 2018년 05월 13일

논문 수정일: 2018년 07월 04일

게재 확정일: 2018년 07월 13일

**A Study on the News Reports'
Glamorized Expressions and Explanation
of background Affect Awareness toward Suicide**

Changhyun Han

Doctoral Student, Dept. of Mass Communication,
Graduate School of Sogang University

Hyunjae Yu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Sogang University

Hwikwan Jung

Assistant Director,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aeksoo Han

Assistant Manager,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Youngji Seo

Ph.D. Student, University of Georgi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glamorous portrayal of suicide and explaining background of suicide on perception of suicide. The study was a 2 (glamorous portrayal: using vs. not using) x 2 (explaining background: using vs. not using) between-subject factorial design online experiment. In addition, some of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interviewed. The findings from an experimental study (N = 120) suggested that distortion and riskiness of suicide were greater in the condition of using glamorous expressions and explaining background of suicide compared to not using those expressions. In addition, participants who watched video included both independent variables had a lower negative perception on suicid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framed messages and realistic media contents and guidelines were discussed.

Key words : Suicide News Report Guidelines, Glamorized Expressions of Suicide, Attitude toward Suicide, Werther Effect, Suicide Prevention, Media Effect